

해남군, 국도 1호선 기점 ‘땅끝’ 변경 추진한다

타당성 용역 거쳐 건의...땅끝 상징성·국도 균형 발전 기대 고속도로·철도 등 SOC 사업 추진 순항...연장 시너지 효과

해남군이 기존 국도 1호선의 기점을 해남 땅끝으로 연장을 추진한다.

28일 해남군에 따르면 국도 1호선은 목포시에서 관문점을 거쳐 평안북도 신의주까지를 잇는 대한민국의 중심 종축 국도로, 현재 기점은 목포 신외항에 위치한 목포대교다.

현재는 기점 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비 중으로, 올해 말 용역 결과 나오면 국토부 등 정부 부처에 기점 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다.

해남군의 국도 1호선 기점 변경 추진은 해남을 잇는 고속도로·철도 등 대규모 SOC사업에 속도를 높이면서 군의 상징성 창출과 국도 균형 발전의 의의를 높이는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광주-해남-완도간 고속도로는 지난

달 13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약속 받으며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았다.

광주에서 강진 구간은 2028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73%에 이르고 있다. 강진-해남-완도 구간은 현재 한 국개발연구원 정책성 평가가 진행 중으로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2028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보성-해남-임성을 연결하는 경전선은 2025년도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오는 10월 시운전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후 7월께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해남군이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KTX해남 노선 연결도 운곽을 드러내고 있다.

군은 해남군과 완도군 노선을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해저터널로 연결되는 제주 구간은 추후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공사와 선형개량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국도 7호선의 미연결 구간인 ‘해남 화원-신안 압해간 연결공사’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총연장 13.49km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18%다.

‘해남-대흥사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와 ‘마산-산이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도 본격 추진된다.

해남-대흥사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최근 보상협약이 완료된 구간에 우선 공사를 시작했고, 광역상수도 이설을 위한 설계도가 6월 중 마무리될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마산-산이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마산면 상동리에서 산이면 노송리 미송기든까지 5.6km 구간을 1단계 사업으로 전체 사업구간 16.7km 중 일부 구간이 올해 6월 착공된다.

마산-산이간 지방도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접근성 향상과 농수산물 유통 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군은 지리적인 여건상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이유만으로 대형 국책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에 차질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관광객 유치에도 큰 제동이 걸려왔었다”며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목포,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종량제봉투·공공요금 등 지원

목포시는 28일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0개 업소(외식업 7·미용업 3)를 2024년도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 2-3월 상반기 정기 모집에 참여 업소를 신청받아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분야에 대한 현장평가와 제반 행정처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10개소를 새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 업소에는 지정서 교부와 인증표창이 설치됐으며 이 밖에 운영 물품, 종량제봉투 및 공공요금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지난 3월 유달산봄축제 행사장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전개했고, 오는 5월 소년(장애인)제전을 대비한 이용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 직원들이 착한가격업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행정안전부·시 홈페이지 소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영광군 제공)

영광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 본격화

5년간 433억 투입...SOC 사업 등 농촌균형발전 도모

영광군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위한 농촌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8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며 농촌개발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종만 군수를 비롯해 22개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22개 지자체의 시장 군수와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착수할 농촌협약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

졌다.

농촌 협약은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농민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해당 계획 실행에 필요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영광군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30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33억원을 투입해 농촌 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추진 사업은 ▲영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45억3천600만원) ▲백수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60억

완도 청해진 유적, 정주기반 시설 개선한다

‘장자리 마을’ 문화재청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 선정

완도군은 28일 “사적308호 ‘완도 청해진 유적’이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은 문화재청이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과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국가유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유산 구역 내 마을의 낙후된 정주기반 시설을 개선한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완도 청해진 유적’ 인근의 장자리다.

올해는 사업 추진 방식 등 전체적인



목포대 총동문회 “의대 설립 결단 촉구”

지역사회·정치권 상호 연대 의대 유치 최선

목포대학교 총동문회는 “최근 목포 상그리아비치리조트 호텔 연회장에서 제30대 회장 취임·출발식을 갖고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박홍률 목포시장, 김원이 국회의원, 목포대 총동문회가 참여했으며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오장현 목포대학교 총동문회 제30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김영록 지사의 공모절차를 통한 의대 확정 발표는 그동안 합의된 통합 전남의대 유치를 염원하는 서남권 주민과 7만 동문을 우뚝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목포대가 중심이 되지 않는 의대유치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록 지사의 결단을 촉구하며 “동문회 지속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학교·정치권과 상호 연대하는 등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를 최선으로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원이 국회의원도 “김영록 지사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의대공모 절차는 동서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라며 협회를 주장했다.

이어 “이미 해법은 나와 있다”며 “의대와 대학병원은 목포대로, 동부권에는 여수가 희망하는 전남대병원 분원 설치, 산업재해가 많은 광양에는 산재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률 시장은 “의대유치는 목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서부권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기회”라며 “31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목포대 동문의 지지와 협력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안=김성호 기자

신안 ‘K-김밥 월드컵’서 황연정·소인자씨 특별상 수상

“중앙·지방 정부 협조 받아 세계에 진출하는 게 꿈”

“신안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에 이용해 만든 김밥이 이처럼 좋은 평을 받게 돼 그동안 고생이 말끔히 씻어지는 기분입니다.”

지난 27일 신안군 주최로 신안군 자연면 뮤지엄파크에서 열린 세계김밥페스타 ‘K-김밥 월드컵’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황연정·소인자씨는 밝은 표정으로 수상 소감을 밝혔다.

어머니와 함께 출전한 황씨는 “지난해 가을 신안에서 첫 김밥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참가를 못한 것이 아쉬워 그 이후 2회 대회 참가를 준비했다”며 “지난 3월 중순 갑자기 김밥대회 개최를 앞당긴다는 소식을 처음 듣고 구체적으로 레시피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신안 자연도에서 열린 ‘K-김밥 월드컵’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황연정·소인자씨. 가운데는 최은용 이마트24 MD담당 상무.

황씨는 이날 신안 시금치와 톳을 활용한 ‘신안뽕파이롯김밥’을 선보였다. 창의성과 상품화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이 외에 신안의 대파와 닭을 꼬치구이로 만든 ‘파닭’과 ‘파기름 라면’을 김밥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황씨는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세계에 내놓고 싶다”며 “개인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협조를 받아 세계에 진출하는 게 꿈”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지난 12일 전국의 참가자들이 예선전을 거쳐 20팀이 본선에 올라 이날 기량을 겨뤘다.

특히 이번 김밥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특별상을 받은 작품은 편의점용 김밥으로 만들어져 올 하반기 전국 6천600여 매장에서 판매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은용 이마트24 MD담당 상무는 ‘이마트24 특별상’을 직접 시상하며 “전세계적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밥이 K-푸드의 중심에 있다”며 “김밥 상품에 힘을 주고 있는 이마트24가 세계김밥페스타에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안=양홍 기자

시계탑 등 설치...동함평IC 회전교차로 새단장

함평군은 “최근 제2회 함평나비대축제에 맞아 함평의 관문인 동함평IC 회전교차로에 시계탑 등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함평IC를 빠져나오면 첫눈에 볼 수 있는 ‘함께 함평’이라는 함평 관광 슬로건과 캐릭터 문자 조형물이 설치됐다.

회전교차로 중앙에 ‘함평천지 만대번영’을 새긴 6m 높이의 시계탑이 자리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한 시계탑 좌우와 뒤편에 자리한 세 그루의 소나무는 군 소유 수목을 선별해 조성 전문가와 활착을 진행하는 등 경관 조성과 예산 절감 효과도 함께 고려했다.

이상익 군수는 “회전교차로를 지속 설치해 군민의 안전교통 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교통성 경관 조성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민과 관광객의 불거리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